

제 2 외국어/한문영역

한문

- ④ 伯仲勢-----⑤ 長蛇陣

11. 성어와 우리말 속담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?

- ① 走馬看山 : 수박 겉핥기
- ② 草綠同色 : 가재는 게 편
- ③ 漢江投石 : 제 눈에 물 대기
- ④ 宿虎衝鼻 : 굽어 부스럼 내기
- ⑤ 一舉兩得 : 도랑 치고 가재 잡기

12. ()에 들어갈 한자어로 알맞은 것은?

중국의 남북조 시대 노장(老莊) 사상에 심취하였던 죽림칠현(竹林七賢) 중 한 사람인 완적(阮籍)은 예의범절에 얽매인 지식인을 보면 속물이라 하여 ()했다고 한다.

- ① 重要視-----② 靑眼視-----③ 白眼視
- ④ 當然視-----⑤ 同一視

13. 글의 속뜻과 가장 가까운 성어는?

水隨方圓之器, 人依善惡之友.
『명심보감』

- ① 竹馬故友-----② 水魚之交-----③ 知彼知己
- ④ 近墨者黑-----⑤ 大器晚成

14. ㉔의 ()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?

㉓ 어떤 남자가 소를 훔친 혐의로 관가에 끌려갔다. ㉔ 그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글을 썼다.

㉕ 妾身非織女 ()豈是牽牛 ㉖ 고을 원님이 그 남편의 결백함을 알고 방면했다.

* 牽(견): 끌다

- ① 郎-----② 娘-----③ 祖-----④ 父-----⑤ 母

15. 글에서 강조하는 교훈으로 알맞은 것은?

破山中賊易, 破心中賊難.
『양명전서』

- ① 단결-----② 극기-----③ 용감-----④ 인화-----⑤ 평화

16. 밑줄 친 부분의 풀이 순서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? [1 점]

水深可知, 人心難知.
『순오지』

- ① 人 - 心 - 難 - 知-----② 人 - 心 - 知 - 難
- ③ 心 - 人 - 知 - 難-----④ 心 - 難 - 人 - 知
- ⑤ 難 - 知 - 心 - 人

[17~18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自秋七月既望, 每日早集大部之庭, 績麻, 乙夜而罷. 至八月十五日, 考其功之多少, 負者置酒食, 以謝勝者.
『삼국사기』

17. 위 글에서 솜씨를 겨루는 행사는? [1 점]

- ① 베짜기-----② 바느질-----③ 수놓기
- ④ 김매기-----⑤ 벼베기

18. 위 글에서 솜씨를 겨루는 행사 기간은?

- ① 5 일-----② 10 일-----③ 15 일
- ④ 1 개월-----⑤ 3 개월

[19~2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王耳忽長如驢耳. 王后及宮人皆未知, 唯幞頭匠一人知之, 然生平不向人說. 其人將死, 入道林寺竹林中無人處, 向竹唱云, “吾君耳如驢耳.”
『삼국유사』
* 驢(려) : 당나귀 * 幞頭匠(복두장) : 모자 만드는 사람

19. 왕이 숨기려는 신체의 부위는? [1 점]

- ① 귀-----② 눈-----③ 입-----④ 코-----⑤ 목

20. 복두장이의 마지막 행동과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?

- ① 말이 많으면 정작 쓸 말이 없다.
- ② 귀는 커야 하고 입은 작아야 한다.
- ③ 말 잘 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 한다.
- ④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.
- ⑤ 밀 터진 항아리는 막아도 입은 막기 어렵다.

21. 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제 2 외국어/한문영역

한 문

3

去年九月過九月, 今年九月過九月.
年年九月過九月, 九月山色長九月.

- 김삿갓 -

- ① 산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.
- ② 산의 모습은 볼 때마다 다르다.
- ③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.
- ④ 산 빛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답다.
- ⑤ 산에서 가을 달을 보며 향수를 느낀다.

[22~23] 다음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(가) 寺在白雲中, 白雲僧不掃.
客來門始開, 萬壑松花老.

- 이달 -

(나) 松下問童子, 言師採藥去.
只在此山中, 雲深不知處.

- 가도 -

* 壑(학): 골짜기

22. (가)와 (나)의 공통적인 시적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절망적-----② 감상적-----③ 회의적
- ④ 향수적-----⑤ 탈속적

23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?

- ① 5언 절구의 형식이다.
- ② 문답법이 사용되었다.
- ③ 시각성이 두드러진다.
- ④ 구름과 소나무가 소재이다.
- ⑤ 제 2, 4구의 끝 자가 운이다.

[24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一日, 遣婢買肉而來, 見肉色, ㉠似有毒. ㉡問婢曰, “所買之肉, 有幾許塊耶” ㉢乃賣首飾得錢, ㉣使婢盡買其肉, 而埋于墻下, ㉤恐他人之買食生病也.

『해동속소학』

24. 주인공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배타적 -----② 이기적-----③ 이타적
- ④ 과시적-----⑤ 소극적

25. ㉠~㉤ 중 밑줄 친 ‘遣’과 쓰임이 같은 것은?

- ① ㉠-----② ㉡-----③ ㉢
- ④ ㉣-----⑤ ㉤

[26~2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夫百車之載, 不及一船. 陸行千里不如舟行萬里之爲便利也.
故通商者, 又必以水路爲貴. 我國三面環海, 西距登萊, 直線六百餘里, 南海之南, 則吳頭楚尾之相望也.

『북학의서』

* 登(등) * 萊(래) * 吳(오) * 楚(초): 모두 중국의 지명

26. 위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수산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.
- ② 중국과의 바닷길이 멀지 않다.
- ③ 해로(海路)의 개발이 필요하다.
- ④ 대량 수송에는 물길이 유리하다.
- ⑤ 우리 나라는 반도국(半島國)이다.

27. 밑줄 친 부분의 문장 형식은?

- ① 감탄형-----② 피동형-----③ 가정형
- ④ 사동형-----⑤ 비교형

28. 밑줄 친 부분의 대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

兵刃既接, 棄甲曳兵而走, 或百步而後止, 或五十步而後止, 以五十步笑百步, 則何如?

『맹자』

* 曳(예): 끌다

- ① 積小成大-----② 小貪大失-----③ 日就月將
- ④ 東奔西走-----⑤ 大同小異

[29~3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人心之所同然者, 謂之公論. 公論之所在, 謂之國是. 國是者, 一國之人, 不謀而同是者也. 非誘以利, 非所以威, 而㉠三尺童子, 亦知其是者, 此乃(㉡)也.

『퇴계집』

29. ㉠의 속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? [1 점]

- ① 초등학생-----② 중학생-----③ 고등학생
- ④ 대학생-----⑤ 성인

30. ㉡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?

- ① 公論-----② 國運-----③ 國是
- ④ 公益-----⑤ 國論

※ 확인 사항

○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